국보 · 보물, 근현대미술로 조명한 한국의 美

‘DNA :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0월 10일까지

일섭 ‘미륵불도’ 백남준 ‘반야심경’ 등 250여 점 전시
국보 · 보물 등 35점, 근현대미술 130점, 자료 80점
聖 · 雅 · 俗 · 和 4가지 테마 키워드로 전시 구성해
연구가 44명 ‘한국미술 다시읽기’ 시도한 도록 발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의 미(美), 그 근간은 무엇일까. 한국의 문화재와 근현대미술의 유기적 관계 고찰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7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을 개최한다.

국보, 보물 등 문화재 35점과 근현대미술 130여 점, 자료 8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박물관의 문화재와 미술관의 미술작품을 서로 마주하고 대응시킴으로써, 한국 미의 DNA를 찾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근대의 미학자인 고유섭, 최순우, 김용준 등의 한국미론을 통해 한국의 대표 문화재 10점을 선정하고, 전통이 근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관찰한다.

전시는 동아시아 미학의 핵심이자 근현대 미술가들의 전통 인식에 이정표 역할을 해온 4가지 키워드인 성(聖, Sacred and Ideal)’, ‘아(雅, Elegant and Simple)’, ‘속(俗, Decorative and Worldly)’, ‘화(和, Dynamic and Hybrid)’로 나뉘어 펼쳐진다.

△1부 ‘성(聖)’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이상주의적 미감이 근대 이후의 우리 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형태로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고려청자의 뛰어난 장식 기법과 도상들이 이중섭의 작품 속 파격미와 전통미에 직간접으로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담긴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에서 볼 수 있는 부처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의 갈망에서 동아시아 미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스러움으로서의 미술을 발견한다. ‘강서대묘 현무 모사도(고구려 6세기 말~7세기)’, 이중섭의 ‘봄의 아동(1952~1953)’ 등이 전시된다.



백남준, 반야심경, 1988, 혼합재료, 133(h)×50.6×94cm

△2부 ‘아(雅)’에서는 해방 이후 화가들이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반향으로 한국적 모더니즘을 추구하고 국제 미술계와 교류하며 한국 미술의 정체성 찾기에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정형의 미감이라는 차원에서 추구됐던 한국의 졸박미(拙朴美)와 한국적 표현주의를 살펴본다. 자연에 동화되어 그린 겸재의 진경산수화, 생각과 마음을 지적으로 그려 내려했던 추사의 문인화에서 격조를 추구하는 심미적 취향을 발견하고, 달항아리의 불완전성과 비정형성에서는 순수함과 무(無)의 조형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인화와 백자가 만들어낸 전통론은 실제 1970~1980년대 한국의 단색조 추상 열풍과 백색담론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조선 17세기)’, ‘백자대호’ 등이 전시된다.

△3부 ‘속(俗)’에서는 서양미술과 조선 및 근현대 주류 미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표현주의적이고 강렬한 미감이 추구되던 장식미(裝飾美)를 살펴본다. 김홍도의 풍속화와 신윤복의 미인도가 어떻게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근대 이후 화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한다. 또한 ‘속’은 대중을 위한 불교를 추구했던 조선 시대 불교회화의 정신 및 미감과도 통한다. 조선 시대 감로도나 시왕도 등은 당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며 고달픈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면모들은 1980년대 민중예술에도 계승되어 강렬한 채색화가 유행하는 데 기반이 됐다. 일섭 스님의 ‘미륵불도(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신윤복의 ‘미인도’ 등이 전시된다.

△4부 ‘화(和)’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며 다양한 가치와 미감이 공존하고 역동적으로 변모하던 1990년대 이후 한국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신라금관(보물 제339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들은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전통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헌정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이 수천 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국미를 대표하는 성(聖) · 아(雅) · 속(俗) · 화(和)’의 미감 속에 조화롭게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남준 作 ‘반야심경’, ‘경주 남산 약수곡 석불좌상 불두’ 등이 전시된다.

한편, 전통미술과 근현대미술 연구가 44명이 참여해 한국미를 대표하는 문화재 10점을 중심으로 공동의 연구주제로 풀어낸 650쪽 분량의 도록이 발간된다.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에 대한 근현대미술의 반응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연구한 48편의 칼럼과 논고를 통해 한국미술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국보와 보물이 현대미술작품과 함께 전시되는 보기 드문 전시 ‘라며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펼쳐놓은 다채로운 미감의 한국미술을 감상하며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2)2022-0600.

全 세계 우수 불교영화 한자리에



2021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서울 대한극장 8월 26~30일

15개국 62편 비경쟁초청 진행
전 세계 우수 불교영화 상영해
THE CUP · 아홉 스님, 개폐막
국제학술세미나 등 부대행사도

전 세계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 (사)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 및 국민들에게 불교 콘텐츠를 활용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 콘텐츠의 다양화와 대중성을 확보, 불교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15개국의 영화 62편을 선정하여 비경쟁초청으로 진행되며, 연꽃, 라일락, 동백꽃, 수선화, 미얀마 특별전 등 총 5개의 섹션을 통해 단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 세계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와 더불어 국제학술세미나, 청소년 영화캠프, 교구 상영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이라는 뜻으로 공식 포스터는 연꽃과 만다라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단청색을 사용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과 미학을 담았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원장 이원덕)이 함께하는 이번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하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이 공동조직위원장, 차승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한편, 영화제 기간 동안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해 자체 코로나19대책위원회를 설립, 대응할 방침이다. 개막식은 8월 26일 오후 4시 대한극장 7관에서 내빈과 일반 관객 약 160명(대한극장 7관 최대 수용인원 320명의 50%) 참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부탄 영화로 ‘THE CUP(1999년, 94분)’이다.

폐막식은 8월 30일 오후 5시에 대한극장 2관에서 내빈과 일반관객 약 80명 참석으로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결과보고 및 4개 부문(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 시상식이 열리며 폐막작으로 ‘아홉 스님(감독/ 윤성준, 2020, 72분)’이 상영될 예정이다. 9월 10일에는 동국대학교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와 미디어와의 접합점 탐구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9월~10월 중에는 동국대 및 충무로 일대에서 룸비니 청소년 영화캠프가 열릴 예정이다. 영화 콘텐츠 제작 참여와 경험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열리는 영화캠프는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불자들이 불교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4교구 상영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